

2027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사항 FAQ

dr

ko

목차

I. 지원신청 공통사항 관련	3
① 신청과 결과 발표	3
② 신청 자격과 선정 제한	7
③ 2027년 달라지는 점	10
④ 예산 편성	12
⑤ 선정 후 집행·정산	15
II. 「책임있는 AI 활용에 대한 안내」 관련	18
①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기본 방향	18
② 지원신청서의 AI 활용 정보 기재(권고사항)	21
③ 작품 창작 과정에서 살펴볼 사항	28

I. 지원신청 공통사항 관련

① 신청과 결과 발표

Q. 2027년 공모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 A. 기본적으로 2026. 10. 8.(목) ~ 11. 5.(목) 15:00까지 접수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일정이 다르니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르코문학펠로우십,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 2026.11.2.(월)~12.7.(월) 15:00까지
 - 공연예술창작산실(대본공모) : 2027.1.5.(화) ~1.28.(목) 15:00까지(예정)
 - 공연예술대관료지원 : 2027년 1분기 내 별도 공모 예정
 - 문학공간활성화지원, 공연장연계연극대표작육성지원, 공연장연계창작뮤지컬대표작육성지원,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인바운드국제레지던시 공동창제작지원) 등 : 2027년 별도 공모 예정
 - 해외레지던시및프로그램참가지원, 국제협업지원(ARKO사업연계) : 신청유형에 따라 상이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이메일·우편·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절차 : 회원가입·로그인→ [지원신청 > 지원관리 > 지원가능사업] 확인→ [신청분야] 선택하기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검증(개인 신청자는 해당없음) → 신청 정보 입력 및 지정 양식 첨부→ [지원신청서 최종 제출하기]
 - 기존 가입이력이 있으실 경우, 신청 전 주소·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학력·경력·주요 작품 등 활동 이력을 현행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신청 확인서,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청렴이행서약서(감사실),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에 동의해야 지원신청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업에 신청해야 할지 모르실 경우, 맞춤형 공모사업 찾기 서비스([바로가기](#))와 AI 안내 챗봇([바로가기](#))을 이용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제출한 뒤에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 A.** 접수 기간에는 제출을 회수한 뒤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마감일 15:00까지 수정 후 '최종 제출하기'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 시간이 지나면 수정할 수 없고, 마감 시간 이후의 접수는 예외 없이 받지 않습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나요?

- A.** 다음에 해당하면 사전 검토 단계에서 걸격 처리되어 심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시스템에서 다른 사업을 선택해 신청한 경우
- 지원신청서 또는 사업별 필수 제출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 다른 사업의 신청서 양식을 쓴 경우, 첨부파일이 빠지거나 열리지 않은 경우
- 그밖에 사업별 공고문에서 걸격으로 정한 경우

※ 첨부파일은 전체 파일 용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zip 파일과 1개 파일당 100mb 이상 첨부이 불가합니다. 제출 전에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심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A.** 사업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1차 서류심의 후 2차 발표 및 인터뷰 심의로 진행하며,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문학심층비평지원 등은 서류심의만 합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은 실연심의까지 3단계로 진행합니다. 사업별 심의 단계와 심의기준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심의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발표되나요?

- A.**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이 의결된 뒤, 2026년 12월 말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www.arko.or.kr)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 결과 발표 시 회원가입 때 등록한 대표번호로 지원신청자 전원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
- 2차 이상 심의가 진행되는 사업은 중간 심의 결과를 누리집 공지와 개별 통지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 심의 일정 및 결과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결과 발표 때 어떤 내용이 공개되나요? 미선정 사유나 점수를 알 수 있나요?

- A.** 결과 발표 때 접수현황, 선정단체(개인)와 지원결정금액, 분야별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을 공개합니다. 선정 커트라인과 본인의 심의평균평점은 담당사업팀에 개별로 요청하면 본인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심의위원의 개별 평가의견은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Q.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심의·평가 방법의 부적정, 심의 관련 부정·비위 행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심의옴부즈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처리 기간 : 민원 접수 마감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10일 단위로 연장하고 신청인에게 알림)
- 단순 미선정 사유 및 점수 문의는 옴부즈만 처리 대상이 아니며, 담당 사업팀에 개별 요청하시면 '선정 커트라인 및 본인의 심의 평균평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업 평가 결과는 다음 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A. 네. 보조사업 모니터링·평가 결과는 다음 회차 지원심의에 반영될 수 있고, 다년 사업은 다음 해 지원금이 늘거나 줄어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자격과 선정 제한

Q.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고유번호 중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부적격 처리되며, 모든 심의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단, 「예술인복지법」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기관
-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 기간 중인 경우, 형 집행 중인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원작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한 대상인 경우

Q. 이전 사업의 정산을 아직 마치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일 기준 직전연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다음 이력이 있으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미정산 : 정해진 기한 안에 정산을 마치지 않은 경우(e나라도움에서 정산보고서 확정과 정산금 반납까지 마쳐야 완료로 봅니다.)
- 미반납 : 교부결정 취소·반환 명령을 받고도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경우

Q. 선정된 뒤 사업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A.** 지원심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뒤) 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사업(동일 사업 내 세부 유형 포함)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심의에서 감점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 A.** 다음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신청하는 모든 사업의 심의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 정보공시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환수명령을 받아 반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Q. 한 사람(단체)이 여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나요?

- A.** 동일인 또는 동일 단체는 기존에 다년으로 선정된 사업을 포함해 최대 2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건 이상 선정 시 2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과 후원사업이 선정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선정 건수에 포함)
다음 사업끼리는 함께 선정될 수 없으니 신청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예술창작주체, 어린이청소년을위한공연예술지원
 - 국제교류사업(해외레지던시및프로그램참가지원, 국제협업지원,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창·제작)은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다년), 시각예술비평·연구지원(다년),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심화·다년), 공연예술창작주체(중장기단체도약지원)
 -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인바운드레지던시지원)과 시각예술창작공간지원,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장기획제작지원)

- 아르코문학펠로우십과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 시각예술창작공간지원과 시각예술전시·행사지원
 -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과 다원예술창작기반지원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같은 단체(실질적으로 같은 단체 포함)는 공연예술제 1건만 지원
- ※ 세부 제한 조건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 간에 지원신청서를 공유할 수 있으며,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신진·청년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 A.** 시각예술 우수작가창작지원(신진),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진입), 공연예술청년예술가지원에 선정되면 문예진흥기금 다른 모든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두 개 이상 선정되면 한 개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 A.** 2026년~2027년 'K-Art 청년창작자지원'에 선정된 분은 2027년 문예진흥기금 다음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아르코문학펠로우십, 문학상주작가지원,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신진),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진입), 공연예술청년예술가지원

③ 2027년 달라지는 점

Q. 34세 이하를 지원하던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없어졌나요?

A. 2027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고, 장르별로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 경력단계별 운영
 - 아르코문학펠로우십(신진) : 창작활동 시작 후 10년 미만, 1천만원 지원
 -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신진) : 활동 10년 미만, 개인전 2회 이상, 1천만원~3천만원 지원
 -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진입) : 기획·창작·발표 이력 1회 이상, 2천만원~4천만원 지원
- 나이 제한 유지
 - 공연예술청년예술가지원 : 34세 이하 예술가 개인, 최근 3년간 발표 이력 2회 이상, 2천만원~5천만원 지원

※ 단, 공연예술청년예술가지원은 과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대상사업(2019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2020~2021년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2022~2023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2024~2026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을 수행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이 목록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바뀌었나요?

A. 2027년에는 사업 이름만 보고도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의 이름과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기존 사업명(2026년 공모)	변경 사업명(2027년 공모)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아르코문학펠로우십,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공연예술청년예술가지원
예술기반청년일자리지원사업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
시각예술창작산실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 시각예술비평·연구지원, 시각예술전시·행사지원

기존 사업명(2026년 공모)	변경 사업명(2027년 공모)
시각예술창작주체	시각예술창작공간지원
다원예술창작산실, 다원예술창작주체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다원예술창작기반지원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제작)	공연예술창작주체(중장기단체도약지원)
공연예술창작주체(창작공간)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장기획제작지원)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비평)	공연예술비평활동활성화지원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어린이청소년을위한공연예술지원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해외레지던시및프로그램참가지원
ARKO사업연계해외진출지원	국제협업지원(ARKO사업연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창작교류)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인바운드레지던시지원)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매개·리서치)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인바운드리서치지원)

※ 분야별로 달라진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첫 부분 <2027년도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다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고,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사업에서 다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 2년(2027~2028년) :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주체(중장기단체도약지원·공연장기획제작지원),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국제협업지원(기획·네트워크, 창·제작),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바운드리지던시지원)
- 3년(2027~2029년) : 시각예술우수작가창작지원(유망·중견), 시각예술비평·연구지원, 시각예술창작공간지원,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심화)

A. 단년과 다년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은 두 유형에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연예술창작주체(공연장기획제작지원)은 단년·다년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다년사업이더라도 지원금은 매년 집행과 정산을 마쳐야 하며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없습니다. 해마다 성과를 점검·평가해 다음 해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예산 편성

Q. 자부담을 반드시 편성해야 하나요?

A. 자기부담금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사업자는 보조금에 공급가액만 편성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e나라도움에서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겸업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과세/면세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은 4대 사회보험료(사용자부담분), 회계검증 수수료, 추가 급여 등을 단체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Q. 예산을 짤 때 반드시 넣어야 하거나 넣을 수 없는 항목이 있나요?

A. 다음 항목은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 정산보고서 검증수수료 : 모든 보조사업은 집행 내역을 외부 회계법인에서 검증받아야 하므로 편성합니다. 단, 문화예술연수단원지원은 지원금이 아닌 단체 자부담으로 냅니다.
-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과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 편성합니다.

A. 자산취득비, 단체 운영성 경비처럼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집행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단, 사업마다 편성할 수 있는 비목이 다르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예술인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보험료를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의 1.6%이며, 이 중 0.8%(사업자부담분)는 별도로 편성하고 0.8%(예술인부담분)는 참여자 사례비에 포함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www.kawf.kr)의 보험료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Q. 자녀 돌봄 비용도 예산에 넣을 수 있나요?

A. 미취학 자녀를 둔 참여예술인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영유아돌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자문 등 한 번만 참여하는 인력은 제외됩니다.

Q. 정산보고서 검증수수료는 얼마를 편성해야 하나요?

A. 사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7백만원 미만은 187,000원, 1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은 302,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908,000원입니다. 전체 기준표는 「지원신청 공통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7년 수수료는 일부 오를 수 있습니다.

Q. 여비와 회의·간담회 비용은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나요?

A. 「공무원 여비규정」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지침」에 따라 다음 한도 안에서 편성합니다.

- 교통비 : 실비(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항공 일반석)
 - 숙박비(1박) : 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 7만원
 - 회의진행비 1인당 1만원, 간담회비 1인당 2만 5천원
- ※ 사업추진비, 국내·국외여비 등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선정 후 집행·정산

Q. 지원금은 어떻게 집행하고 정산하나요?

- A. 선정되면 e나라도움(www.bojo.go.kr)에 가입하고, 보조금 전용 통장을 만들고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집행합니다(현금 인출 불가).
- 보조금 집행 내역은 위원회가 지정한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4월까지 e나라도움에서 정보공시를 해야 하며, 10억원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e나라도움 사용이 어려우면 '아르고 e나라도움 안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보조사업자 설명회를 열어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Q. 선정되면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 A.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보조사업이므로 다음 의무가 있습니다.
-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외부 회계법인 검증, 정보공시, 외부 회계감사(해당 시)
 - 보조사업 기간 동안 신청한 사업자 유지
 - 예술인고용보험 신고·납부, 각종 수당·사례비의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 참여자 전원(프리랜서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부정수급 방지교육 이행
 - 보조사업 관련 계약의 e나라도움 관리,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 교부신청서·실적보고서 등의 기한 내 제출, 모니터링·평가 협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 홍보물·인쇄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표기 등

Q. 참여 예술인과 계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 A. 문화예술용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맺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쓰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바로가기](#)).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거나,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홍보물에 후원 표기는 어떻게 하나요?

- A. 현수막·포스터 등에는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서적·음반·팸플릿 등에는 “이 책(음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년도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를 적고, 두 경우 모두 기관 CI를 함께 표기합니다. CI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 기관소개 > CI가이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 기간 중에 휴업·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사업 기간 안에 휴업·폐업하면 지원결정액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투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에 따라 환수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Q.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계약 방법에 제한이 있나요?

A. 공급가액 2천만원을 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은 조달청 위탁, 지자체 위탁 또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맺어야 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정산보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조사업이 끝난 날(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늦게 내면 그 뒤 처음 받는 보조금을 늦은 기간에 따라 줄일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10% 이내, 6개월 이상 20% 이내, 12개월 이상 50% 이내).
- 내지 않으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이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집행잔액·e나라도움에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 반납해야 할 금액을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반환 명령을 한 뒤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Q. 보조금을 쓸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e나라도움을 통해 상·하반기 연 2회 부정징후를 점검하며, 적발되면 반환과 제재가 따릅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한 경우
- 계약·지출 : 견적서를 나중에 발행하거나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 같은 거래를 중복·분할해 집행한 경우
- 인정되지 않는 비용 : 연체료·가산금, 취소된 전자세금계산서·카드 건을 집행한 경우

II. 「책임있는 AI 활용에 대한 안내」 관련

①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기본 방향

Q. 가이드라인은 어떤 취지로 마련되었나요?

A. AI 기술로 변화하는 창작 환경에서 예술가가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창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의 지원신청과 작품 창작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창작자의 주도적인 역할, AI 활용 정보의 자율적 기재 권고, 타인의 권리 존중 등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신청자, 심의위원, 지원사업 담당자와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 작년 가이드라인과 달라진 점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A. 2026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실제 창작과 지원사업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AI 활용 여부만으로 심의에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주요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원칙 정리 : 인간 창작자의 주도성, 투명성, 책임성, 권리 존중, 정보보호, 공정성과 문화적 다양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7개 기본 원칙으로 정리하고, 각 원칙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작성 양식 마련 : 이번에 신청하는 작품(프로젝트)을 대상으로, AI 활용 경험과 향후 계획, 활용 단계와 내용, 창작자가 직접 수행한 작업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작성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기재 권고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작성하기 쉽도록 마련한 양식이며, 해당란 작성은 권고사항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 심의위원회에 대한 안내 보완 :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중 AI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기존 <심의위원회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6년에는 본 가이드라인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026년 <심의위원회 안내서>에는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Q. 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AI는 글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만을 뜻하나요?

- A.** 아닙니다. 글·이미지·음악·영상 등을 만드는 생성형 AI를 포함하여, 자료의 분석·분류·예측, 관객의 음성·동작 인식, 작품의 작동 제어 등에 활용되는 AI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의 작품(프로젝트)에 여러 AI 기능이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I로 관객의 동작을 인식해 작품의 움직임을 조절하거나, 생성형 AI로 관객의 말이나 질문에 반응하여 새로운 텍스트나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센서나 사전에 정한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기능이 모두 AI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한 도구나 서비스의 기능 설명을 참고하여 AI 활용 여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Q. ‘인간 창작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A.** 작품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예술적 선택과 최종 결정을 인간 창작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AI에 맡길 작업의 범위와 조건을 정하고, 작업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는 역할도 포함합니다.
- 창작자가 모든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창작자가 설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AI가 일부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창작자의 예술적 판단과 역할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Q. AI를 사용하면 심의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가요? 장르에 따라 다른가요?

A.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습니다. 이 원칙은 장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의에서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독창성,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 해당 사업에서 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심의기준은 사업별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원신청서의 AI 활용 정보 기재(권고사항)

Q. 지원신청서를 작성할 때 AI의 도움을 받아도 되나요?

A. 네, 직접 작성한 문장을 다듬거나 사업계획의 구성을 정리하고, 설명용 이미지를 만드는 데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목적과 내용, 참여 인력, 일정과 예산 등은 실제 사실과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AI가 산출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정보나 수행하기 어려운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예술적 관점과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AI 활용 정보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창작 과정에서의 AI 활용 정보’ 작성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작성 여부는 지원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작품(프로젝트)에 AI를 이미 활용했거나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더라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작성란 전체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제한하거나 필수 보완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의에서 감점·탈락 등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작성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알고 있거나 계획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Q. ‘창작 과정에서의 AI 활용 정보’ 작성란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나요?

- A.** 작품의 창작 과정과 창작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심의 시 AI 활용 여부만으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작성란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을 설계·개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AI 활용 여부 현황’과 ‘향후 여부 계획’을 나누어서 묻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선택하나요?

- A.** 이번에 신청하는 작품(프로젝트)에는 신청 전에 이미 기획·구성·제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작품(프로젝트)에서 이미 진행한 작업에서 AI를 활용했는지와, 앞으로 진행할 작업에서 AI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묻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항목 모두 이번 신청 작품(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이며, 다른 작품(프로젝트)에서의 AI 활용 경험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선택 방법
AI 활용 여부 현황	이번 신청 작품(프로젝트)에서 진행한 기획·구성·제작 등의 작업에 AI를 활용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AI를 활용한 적 있음’ 또는 ‘AI를 활용한 적 없음’을 선택합니다.
AI 활용 여부 계획	이번 신청 작품(프로젝트)에서 앞으로 진행할 작업의 계획에 따라 ‘향후 활용 예정 또는 검토 중’ 또는 ‘향후 활용 계획 없음’을 선택합니다.

- 예를 들어, 이번 작품(프로젝트)의 초기 구상에 이미 AI를 활용했다면 ‘활용 경험 있음’에 해당합니다. 이후 제작에서 추가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향후 활용 계획 없음’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프로젝트)에만 AI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번 작품의 활용 경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Q. AI를 사용한 적이 없거나, 사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번 작품에 AI를 활용한 적이 없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면 두 항목에서 각각 'AI를 활용한 적 없음'과 '향후 활용 계획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AI 활용 상세 내용'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란 전체를 기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하기로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면 '향후 활용 예정' 또는 '향후 활용 검토 중'을 각각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현재 알고 있거나 계획한 범위에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직 정하지 않은 서비스명이나 활용 방식을 확정된 것처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아이디어 탐색이나 자료 조사에만 AI를 쓴 경우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작품(프로젝트 결과물)에 AI가 만든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번 작품(프로젝트)의 구상이나 참고자료 검색·요약·분석에 활용했다면 '기획·리서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작품 안내문 작성에만 활용했다면 '홍보·유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작성란은 이번에 신청하는 작품(프로젝트)의 창작 과정과 관련된 활용 내용을 묻는 항목입니다. 지원신청서의 문장을 다듬는 데 AI를 사용한 경우는 작품의 구상·제작에 활용한 경우와 구분됩니다. 지원신청서 문장 정리에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AI 활용 단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되나요?

A. 네, 해당하는 단계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했거나 활용할 시점, 활용 목적과 그 결과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단계	작성란의 의미와 예시
기획·리서치	작품 구상·검토·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시 : 주제 관련 자료 조사·요약, 표현 방향 탐색
창작·제작	AI가 생성·가공한 내용을 최종 작품에 포함한 경우입니다. ※ AI가 생성·가공한 내용을 수정·편집하여 작품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작품구현·발표	작품의 작동이나 관객과의 상호작용에 AI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시 : AI로 관객의 동작을 인식하여 작품의 움직임 조절)
홍보·유통	홍보·안내 등 작품 외 자료에 AI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시 : 홍보 이미지 제작, 작품 소개자료 번역)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활용 내용을 서술형으로 간단히 적어주세요.

Q. 'a.활용 작업'과 'b.콘텐츠 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a. 활용 작업'은 AI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 'b. 콘텐츠 유형'은 그 작업에서 다른 자료나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를 묻는 항목입니다. 각각 해당하는 항목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로 정리된 인터뷰 내용을 요약했다면, 'a. 활용 작업'에서 '자료 검색·수집·요약·분석'을, 'b. 콘텐츠 유형'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a. 활용 작업'의 답변 보기 문항 중 다음 항목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a. 활용 작업	의미와 예시
(네 번째 보기문항)	
기존 콘텐츠의 수정·편집·번역·변환	기존 내용을 고치거나 재구성하고, 다른 언어나 표현 형식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AI로 녹음된 말을 문자로 바꾸는 작업은 '변환'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보기문항)	
실시간 콘텐츠 생성	공연이나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AI로 영상·소리·텍스트 등을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관객 반응 처리	관객의 말이나 움직임 등을 AI로 분석하여 작품이 반응하도록 하는 데 활용하는 작업입니다.

a. 활용 작업	의미와 예시
시스템 제어	AI의 분석이나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의 장치나 프로그램의 작동을 조절하는 작업입니다.

- 일반적인 파일 형식 변경이나 센서 작동이 모두 AI 활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작업에 실제로 AI 기능을 이용했거나 이용할 계획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I 서비스명과 모델명은 어떻게 적나요? 모델명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A. 서비스명에는 ChatGPT, Gemini 등 실제로 이용했거나 이용할 예정인 AI 도구와 플랫폼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모델명은 해당 서비스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할 AI 모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거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임의로 추정하거나 별도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창작자가 직접 수행한 작업'에는 무엇을 선택하나요?

- A. 지원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창작진이 직접 수행했거나 수행할 작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방향·구성 결정, AI에 제공할 자료·지시·조건 설정, 결과물의 검토·선택, 수정·편집·재구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방식의 설계·조정 등이 해당합니다.
- 공동창작이나 기술 전문가와의 협업 시에도 참여자들이 실제 맡은 역할을 기준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출가가 작품의 방향과 장면 구성을 정하고, 영상 작가가 AI 결과물을 선택·편집하며, 기술 협력 전문가가 관객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설계했다면 해당 작업을 각각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참여자별 역할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충 설명에서 간단히 추가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Q. AI 서비스를 여러 개 사용했다면 모두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프롬프트도 제출하나요?

A. 같은 목적의 작업이라면 활용 단계나 서비스가 여러 개여도 묶어서 간략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 목적이나 창작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편이 이해하기에 좀 더 쉽다고 보시면, 'AI 활용 내용' 표를 복사하여 여러 건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 작성란에서는 프롬프트 전체, 대화 기록, 모든 생성 결과물이나 사용 횟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주요 작업, 사용한 서비스, 창작자가 직접 맡은 역할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Q. 200자 이내 '보충 설명'은 꼭 작성해야 하나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A. 아닙니다. 전체 작성란과 마찬가지로 보충 설명도 선택사항입니다. 선택한 항목만으로 충분히 설명된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설명을 덧붙이고 싶다면 AI를 활용했거나 활용할 부분과 창작자가 직접 수행했거나 수행할 작업을 중심으로 2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Q. AI가 작품의 핵심인 경우에는 신청서 본문에도 설명해야 하나요?

A. 네. AI가 작품의 핵심 표현 수단이나 기술적 구성 요소라면, 다른 주요 창작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청서 본문의 관련 항목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예술적 목적, AI의 역할과 작동 방식, 창작진의 역할, 구현 방법 등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작품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전달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며, 지원신청서 마지막 파트의 '창작 과정에서의 AI 활용 정보' 작성란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작성란을 비워 두더라도 본문에서 작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AI 활용 계획이나 서비스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서 제출 시점의 활용 현황과 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 정하지 않은 내용을 미리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이드라인과 작성란 안내에서는 AI 활용 계획 변경만을 위한 별도의 신고·승인 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작품 창작 과정에서 살펴볼 사항

Q. AI가 만든 결과물을 수정하지 않고 작품에 사용하면 안 되나요?

- A.** 창작자가 작품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AI의 역할과 조건을 설정하며, 결과를 검토·선택·구성하는 등 핵심적인 예술적 판단을 주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가이드라인은 AI 결과물을 모두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수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예술적 판단을 AI에 전적으로 맡기고, 결과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제출하는 방식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AI 결과물을 작품에 반영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창작자가 맡은 역할을 살펴보고, 사실관계와 타인의 권리침해 가능성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I가 제시한 자료와 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 A.** 지원신청서나 작품(프로젝트)에 사실로 제시하는 내용은 직접 확인해주세요. 인용문, 통계, 인물·기관 정보, 참고문헌, 사업계획 근거 등은 원문이나 공식 자료와 대조하여 정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AI가 출처를 제시했더라도 해당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내용이 AI가 제시한 설명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특히 참여자의 경력, 협력기관의 참여 여부, 일정과 예산 등은 확인된 사실과 실제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AI가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게 작성한 내용이라도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I를 활용한 작품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AI를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작품 전체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결과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AI 활용 저작물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여부와 범위는 인간이 어떤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안내서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에서 관련 상담([바로가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다른 사람의 작품·사진·음성 등을 AI에 이용할 때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A. 타인의 저작물·실연이나 초상·성명·음성 등을 AI 학습 또는 창작에 이용할 때에는 관련 권리와 이용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필요한 이용 허락을 받고, 저작자·실연자 와 출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출처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려는 목적과 방식에 맞는 이용 조건을 확인해 주시고, AI가 만든 결과물도 기존 작품과 유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작품(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정보나 미공개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개인정보·민감정보는 AI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미공개 창작 아이디어나 계약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용하는 AI 서비스가 입력한 정보를 어떻게 저장·처리하고, AI 학습에 이용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작업에 필요한 범위로 내용을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계정이나 파일 저장소를 AI에 연결할 때에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공정성과 문화적 다양성 존중은 실제 창작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 A.** AI가 제시한 표현에 특정 성별·연령·지역·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럴듯한 표현이라도 특정 문화를 단순화하거나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나 지역·공동체 문화, 소수문화의 요소를 활용할 때에는 그 의미와 맥락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특정 공동체의 의례나 상징을 다룬다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문화적 의미와 가치가 왜곡되지 않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Q. AI를 활용할 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AI를 개발·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는 대량의 전력과 물 등의 자원이 사용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창작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중하게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예를 들어, 작업의 목적과 조건을 미리 정리하고, 불필요한 대량 생성이나 반복 작업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에너지 사용량이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AI 활용으로 생긴 문제는 모두 창작자 개인의 책임인가요?

- A.** ❶창작자는 본인이 제출하거나 AI를 활용하는(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❷심의위원은 심의자료를 보호하고 전문성에 기반하여 직접 판단해야 하며, ❸지원사업 담당자와 기관은 관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적절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실제 행위와 역할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지원신청자, 심의위원, 지원사업 담당자와 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관리·결정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AI 활용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 책임을 다하도록 안내합니다.